



1 영월군 경계에 있는 김삿갓 동상 2 김삿갓 계곡 초입에 있는 김삿갓 휴게소 체험 캠핑장 3 슬로시티의 상징 달팽이 동상 4 해가 지는 내리계곡 솔밭캠핑장



영월의 여름은 서늘하다. 길게 뻗은 내리계곡 옆으로 줄 지어 늘어선 캠핑장들은 더위에 지친 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다. 이번 여름에는 김삿갓의 사연이 얽힌 곳, 영월 김삿갓면의 계곡을 찾아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란 말을 전해준다. 큰 충격을 가 보는 것은 어떨까. 김삿갓면을 흐르는 내리계곡은 영 월 남단 구룡산(1,346m)과 선달산(1,236m)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해 만들어진 계곡이다. 구룡산과 접한 상동읍 일대는 십승지(十勝地) 중 하나다. 십승지란 조선시대 난 을 피해 몸을 보전할 수 있는 10여 곳의 장소를 말한다. 상동읍 덕구리의 삼동산은 고랭지 배추밭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흐른 물은 영월군 남쪽에서 서북쪽 으로 길게 형성된 김삿갓면 가운데를 관통한다. 김삿갓 면은 이 지역이 김삿갓의 삶과 밀착된 곳이기 때문에 얻 은 이름이다.

김삿갓의 집안은 1811년 일어난 홍경래의 난 때 관직에 있던 조부 김익순이 투항하는 바람에 풍비박산 났다. 김 삿갓은 어머니 함평 이씨와 함께 영월로 숨어들어와 살 길이 내리계곡로인데, 이 길 중 가장 높은 곳이 해발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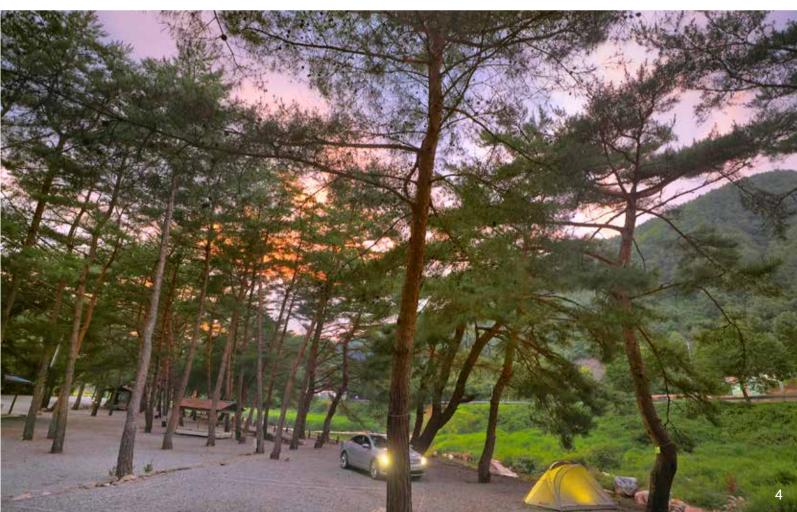
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성장한 김삿갓은, 영월에서 열린 백일장에 나가 김익순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한 글 로 장원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귀가해 어머니에게 이 사 실을 알렸지만,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한다. 어머니는 그 받은 그는 수년간 인근에 은둔하다 결국 유랑 생활을 시 작한다. 평생을 가진 자와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시를 쓰 며 다니던 그는 전남 화순에서 객사했고, 유해는 이곳 영 월 땅으로 옮겨져 묻혔다. 200년이 지난 지금은 오지였 던 이곳에 길이 뚫리고 넓혀지면서 그 가치가 차츰 알려 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캠핑 붐과 함께 청정한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 내리계곡 솔밭 캠핑장

많은 내리계곡 캠핑장 가운데 솔밭 캠핑장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 계곡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삿갓면 남쪽에 자리 잡은 구룡산과 목우산 사이로 난







62 | YONHAPIMazīne August 2019



1 푸른 하늘과 맑은 계곡이 인상적인 내리계곡 2 바이크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곧잘 눈에 띈다.

m가량 된다. 이곳에서 꼬부랑길을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 소가 바로 이 캠핑장이다. 20년 넘 게 이곳에서 캠핑장을 운영해온 업주 는 원래 이곳이 버려진 계곡 옆의 솔 밭이었다고 말한다. 한 명 두 명 자리 를 잡고 캠핑을 하기 시작해서 야영장 개설했는데, 지금은 100동을 한꺼번에

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됐다.

때마침 평일이라, 드넓은 솔밭 가운데 가장 멋진 장소를 골라 텐트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바닥은 크기가 균일한 파 쇄석으로, 배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텐트는 가벼 운 2인용 백패킹용 텐트를 설치했다. 여행하다가 멋진 풍 광을 발견하면 곧바로 텐트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항상 차에 백패킹용 텐트를 싣고 다닌다. 또 시골을 다니 다 보면, 제대로 된 숙소를 고르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차에 준비된 텐트와 침낭은 유용하게 쓰인다. 캠핑장은 온수로 샤워와 설거지가 가능하고 야외 개수대 와 물놀이 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까지 완벽하게 갖 럼 운 좋게 평일 캠핑을 즐기는 호사를 누렸지만, 다음날 캠핑 추고 있었다. 주인아주머니는 TV 예능 프로그램도 촬영했다고 장은 주말을 맞아 들어온 가족들로 꽉꽉 들어차기 시작했다. 자랑한다.

가장 좋은 자리는 물가와 접하고 있는 곳이다. 수심은 어른 기 준 무릎부터 가슴높이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족 단위 물놀 이에는 적당한 수준이다. 전망 욕심에 구획에서 벗어나, 물가에 바짝 붙여 텐트를 설치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단지 물 흐르는 소리에 청량감을 느끼며 단잠에 빠져들었다. 가끔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이처

이쯤 되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을 듯 했다.

▲ 줄지어 늘어선 캠핑장들

내리계곡을 내려가면서 수없이 많은 캠핑장을 만날 수 있었다. 솔밭 캠핑장 바로 맞은편에는 '휴가를 부탁해' 캠핑장이 있고 또 내려가면 '느티나무 쉼터' 캠핑장이 있다. 다구(茶具) 전문 박물관인 호안다구 박물관을 지나면 또 다른 '느티나무 쉼터'





김삿가휴게소 체험캠핑장

캠핑장을 만날 수 있다. 이 캠핑장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내리계곡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지만, 다리 밑으로 난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면 천연 수영장이 넓게 형성돼 있다.

주말인 다음 날 오후, 느티나무 쉼터 캠핑장에 있는 수령 250년 의 높다란 느티나무 앞에 식료품을 실은 트럭이 멈춰섰다. 장기간 캠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식 차가 반갑다. 식료품을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캠핑하러 온 사람들 덕분에 지역에 돈이 도는 것이다. 구획이 잘 짜인 캠핑장 안으로 들어서니 가족단위 캠핑객부터 잠시 물놀이를 하러 온 젊은 여성들까지 가세해 지금이 바로 캠핑의 계절임을 실감케 했다. 수많은 가족이 갖가지 장비를 설치한 모습이 마치 캠핑 장비 박람회 같다. 제각각물놀이에 빠져 있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돔 텐트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였다. 타프 밑에 타프 스크린을 치거나, 이 두 가지 조합이 합쳐진타프쉘 형태의 텐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타프는 대략가





나조<u>스</u>트캠프 캠핑장

김사가 캠핑장

김삿갓 계곡

김<u>사</u>갓펜션 오<mark>토</mark>캠핑강

김사갓모역



외룡 캠핑장

로 5.5m에 세로 4.4m가량으로, 승합차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까지 모두 캠핑장에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랴. 전 기 사용이 자유로운 오토캠핑장이므로, 선풍기를 가져온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는 가정 INFORMATION

주변에는 다구 박물관, 소리음향 박물관 등 둘러볼 만한 박물관이 산재해 있다. 꼭 한번 찾아가 볼 만하다. 박물관들은 반드시 전화를 걸어 개관 여부를 묻는 것이 좋다. 여름 성수기 캠핑비는 5만원 선이다. 대부분 매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스나 물 등 간단한 생필품은 구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반려견을 수용하는 캠핑장은 아직 없다.

에서 쓰는 제빙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수년 전의 일이다. 또 다른 변화는 카라반을 활용한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화물 트레일러도 심심찮게 눈 숙발캠핑자에 띄었다. 주변에 캠핑장이 줄잡아 10여곳은 돼 보인다. 캠핑장이 이곳에만 있는 건 아니다. 내리계곡에서 김삿갓면으로 향하다 왼편 와석리 쪽 28번 도로로 접어내기들면 김삿갓 계곡이다. 김삿갓 묘가 있는 곳이다. 내리계곡보다는 캠핑장이 많지 않다. 이곳에는 나조스트캠핑장 등 모두 4곳이 영업하고 있다. ♥

자연펜션 캠핑장

August 2019